

## 회의록

위원장

학교장



5/002

○ 일시 :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15:30

○ 장소 : ZOOM을 통한 온라인 회의

○ 회순

1. 위원장 개의 선언      2. 안건심의      3. 폐회

의사일정

1. 2023학년도 학사일정 변경(학교장 재량휴업일 변경)  
2. 2023학년도 2학기중 현장체험학습 계획(안)  
3. 2023학년도 유치원 학사일정 변경(학교장 재량휴업일 변경)

(간사) : &lt;국민의례&gt; 생략

(학교장): 학교장 인사말씀.

-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아예 급하게 안건을 제하고 지금 소집을 해서 너무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그래도 꼭 해야되는 그 안건이 있어서 급하게 이렇게 소집을 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난 개학날 8월 18일날 소래 너나들이 하고 지하주차장 개관을 했는데 선생님들 많이 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 학기 교육과정 운영은 서로 너나들이 시설을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유익한 유익미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과정 안에서 시설을 이용해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 때문에 굉장히 기쁩니다.

소래 너나들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분들 세 분이 계신데, 그분들과 그렇게 소통하면서 학교 교육 활동에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면 늘 제안해 주시면, 우리 소래초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로 삼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건 심의 잘 해주시고 건강하고 또 행복한 그런 가을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회의 진행해 주시죠.

-위원장 : 소래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 12명 중 과반수 이상인 7명이 참석하여 소래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성원이 되었기에 개의를 선포합니다.

&lt;의사봉 3타&gt; 생략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할 안건은 -위원장 : 안건 포함 총 3건 입니다. 심의 순서는 담당자의 제안 설명, 질의응답, 가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비대면회의로 통과 선포하는 의사봉 3타를 생략하려고 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 심의안건번호 1번 2023학년도 학사일정 변경(학교장 재량휴업일 변경)을 상정합니다.

&lt;의사봉 3타&gt; 생략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이O호) : 네. 화면 공유를 먼저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이 학기 학사일정 변경에 대한 건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월요일 날에 본교 소속 교직원들의 연.병가 상신 비율이 과반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하여 해당 일을 임시 휴업일 또는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지정해

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요. 휴업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회장은 비상재해나 그밖에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 돌봄이나 방과후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통해서 운영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제 임시 휴업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운영 관련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경로로 접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9월 4일은 전국적으로 공교육 정상화의 날, 공교육 멈춤의 날로 운영을 하자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총 교사 24명 중에 14명 17분이 이에 동의 의사를 밝혀 주셨어요. 그리고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 수렴을 하였는데 그것을 자료로 정리를 했어요. 찬성하시는 의견이 124분 57.9%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이 29분 13.6%요 그다음에 학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분이 61분 28.5%, 그래서 찬성과 학교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존 재량휴업일이 10월 2일로 잡혀있는데, 이걸 그대로 유지할 건지 아니면 이걸 운영하지 않고 이제 이 재량휴업일을 앞으로 당겨오는 형식으로 할지 이렇게 할지 물어보는 설문에서도 그냥 기존대로 운영을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10월 2일 같은 경우는 현재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학교 재량휴업일은 공휴일으로써 운영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지난주에 급하게 공고를 냈고, 그다음에 다음날 학부모 회장님과 학교 운영위원장님께서 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협의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무를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무기명 조사를 했을 때 14분 정도가 참석 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원안입니다. 조금 후 교장 선생님께서 부연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저희 선생님들의 의지나 우리 학부모님들의 협조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뉴스나 다양한 경로도 접하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제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추진을 하고 있던 학교들도 많이 취소를 많이 한 게 사실이구요. 그래서 지금 이 일단 이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재량휴업일로 지정이 되고,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안 되어서 정상적인 재량휴업일 운영이 된다 그러면 겨울방학식이 원래 당초 올해 12월 29일이었는데, 하루가 밀리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추후의 문제입니다. 수업 일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루 밀려서 만약에 9월 4일날 수업 못 하게 되더라도 수업

일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원래 계획되었던 190일 수업일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에서 이제 재량휴업일 지정한다는 것을 교육부에서는 절대 불허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좀 제지를 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원안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제 지금 학운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심의 안건 번호 1번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 네. 제가 좀 보충해서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서울 서이초 선생님이 이제 학교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하다가는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학교가 무너진다고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 바로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뜻을 모아서 선생님의 49재일인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해서 진행되다가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공교육 정상화의 날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선생님들이 동의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날 9월 4일날 도저히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겠다라는 판단하에 학부모님과 교직원들의 의견을 모았죠. 재량 휴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교무부장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저는 학부모님들께서 반대 많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학부모님들께서도 공교육을 세워야 되겠다는 의지가 교사들과 같아서 이번에 한 번 공교육을 멈춰서 공교육을 세우기 위해서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9월 4일 한 번 동참하자 라는 뜻을 모아서 찬성이 굉장히 높았고 거기다가 학교와 학운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도 높아 거의 86% 이상이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학교 학운위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 재량휴업을 지정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23일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담화문을 학교로 내려보내 주셨어요.

서한문의 취지는 선생님들이 교권을 위해서 학교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교권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공교육을 중단시키면서까지 집회를 통해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 공교육은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강력한 담화문을 보내셨고 공문으로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문으로도 25일날 금요일날 교원 휴가에 대한 예규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휴가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연가를 내지 말라는 거죠. 이런 공무 학사 운영과 복무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점검을 하겠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공문이 내려왔고 그다음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28일자 신문에서 보면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교육부가 교사들이 집단행동 움직임을 9월 4일 불법 행동으로 규정을 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하겠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사들이 집단 행동을 위해 학교가 이날 임시 휴업일을 지정하거나 교사가 연가 병가를 사용하여 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 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서 교육부는 국가 공무원법을 적용하는 교사가 이번 경우처럼 집단적 연가 병가 등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상 사실상 불법 파업 행위로 판단을 하고 나중에 어떤 조치를 내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교육부에서 다시 현장에서 느꼈을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그래서 교육부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면서 교권 회복을 위해서 교육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학교 휴업 일이나 이런 것을 못하고 강행하면 불법이다 이런 공문을 자주 내려보내니 고민이 됐죠. 우리 학부모님, 선생님들 동의해 주시고 찬성해 주시고 학운위만 지 통과하면 심의하면 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자주 이렇게 내려오는 공문이나 지침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어려울 거 같다, 심지어는 교장 파면, 해임까지 얘기를 하니 저로서도 이거 재량휴업일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인제 주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회의 전에 회의 바로 직전에 우리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야기를 나눈 결과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교장 교감선생님도 다치고 선생님들도 다치면서까지 재량 휴업일을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라는 의견에 동의를 해 주셨어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셔서 이 회의 방금 전에 선생님들 모임에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셔서 어쨌든 조건은 완 조건은 충족하나 그동안에 흘러가는 상황 정황상 학교장 재량 휴업일 임시 휴업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학운위에서 임시 휴업을 지정하는 것을 불가로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의견을 표명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교원 위원이나 학부모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해서 동의하고 이견이 없다는 것으로 표한 걸로 간주해도 될까요? 네. 다른 위원님들은 한번 손으로 이렇게 OK 사인이나 뭐 이렇게 손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좀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들: 네. 동의합니다.

- 이O화: 저 학운위에서 한마디 말씀드려도 될까요?

학운위 위원님들 꼭 보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장 : 고맙습니다. 우리 연구부장님이세요. 마음 아픈데 지금 눈물까지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학운위위원들께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은 위원장님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 :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안건번호 1번 2023학년도 학사일정 변경(학교장 재량휴업일 변경)은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 략

-위원장 : 심의안건번호 2번 2023학년도 2학기중 현장체험학습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 략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이O호) : 네, 현장 체험 학습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이제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 체험 학습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주로 외부로 나가는 이제 교육체험활동을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관리겠죠. 그리고 수익자 부담경비가 발생하는 현장체험 학습은 사전에 부모님들께 동의를 받고 나중에 정산까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법제처에서 최근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이럴 경우에도 통학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해서 현장 체험 학습에도 어린이 통학 차량을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통학 차량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차에다가 어린이 통학용 이렇게 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구요. 여러 가지 세세한 조건들이 있어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노란 색깔로 도색이 되어야 되구요. 학생 체형에 맞는 안전벨트라든지. 하차 보조 발판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 충족된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 부모님들께서 현장학습 갈 때 보셨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동안은 일반 관광버스를 다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법제처에서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 차량 타야 한단다고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런데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개조되어 있는 차량을 구할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당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 있구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차량을 이용했다가 정말 원하지는 않지만 정말 불가피한 사고가 생겼을 때는 학교나 담임 선생님의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내용이 바뀌긴 했어요. 메신저로만 전달을 했다고 하다가 공문으로 왔는데 원칙적으로는 변한 게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전에 유의하면서 정상대로 진행을 하라고 하되,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방안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도 물론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거지만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사고가 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조치 사항이 나오기 전까지는 본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현장 체험 학습은 무기한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단서를 좀 붙여 놓을까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밑에 일정 보겠습니다. 운영 세부 지침은 일반적인 거구요. 그런데 시흥 창의 체험이라든지. 생존 수영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우리 학교에서 차량을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체험학습을 다 취소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너무 체험학습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실제 계약하지 않는 차량을 이용하는 현장 체험학습은 그래도 가까운 데로 가는 게 많아요. 이제 길게 타봐야 한 10분, 20분 타는 거니까 이것은 실시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구요. 다만 한 시간 내외로 타게 되는 그런, 또 고속도로 타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는 좀 유보를 시키는 게 맞지 않는지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학기 때도 심의를 받은 바 있는데, 원래 이제 학급당 두 명 이상 또는 25명당 두 명 이상 인솔자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인솔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서 인솔교사 한 분이 인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숙박형 체험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되는 범위는 사전답사를 갈 것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데만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가 작동을 하는데 이것은 학운위에서 대신 협의를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학년별로 혹시 체험학습 심의를 받게 되는 경우, 체험학습 사전답사 여부, 인솔자, 보험가입 여부까지도 학운위에서 의논을 해 주시면, 따로 활성화 위원회 소집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기존에 계획해 놓았던 외부로 나가는 일일형 체험학습이 계속되는 정책 수립 미비로 무산될 경우에는 그래도 수립된 예산 범위 내 대해서 다양하게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험학습을 대체 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물론 현장체험학습 나가면 참 좋지만 그렇다고 이제 위험을 무릅쓰면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생존수영이나 시창이라고 되어있는 시흥창의체험 이것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 한 10분 정도 길어야 한 20분 이 정도 차 타고 가는 건데 이 프로그램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일단 너무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구요.

-위원장 : 심의 안건 번호 2번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O정 : 지금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여행이 수행이 수학 원래 이런 상황이 안 됐을 경우예요. 네 수학여행 명목으로 어딜 갈 그것도 이렇게 무기한 연기되는 건가요? 맞아요.

-담당자(이O호) : 수학여행 명목으로 가는 것은 1학기 때 한 번 다녀왔죠. 그러니까 2학기 때도 아이스링크하고 이제 온체책임기 체험학습이 있긴 있었는데, 이것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게 물론 이제 교육 경찰청 교육청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생기면 이제 바로 공문 시행을 하기도 했는데 아직은 그게 나오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이게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O정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가 어린이집 차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차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차 같은 거를 얘기하시는 거 같으면 그런 게 없으면 못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담당자(이O호) :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게 그게 어린이용 통학차량 중에 보면, 간혹 유치원 중에 큰 버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작은 봉고차 같은 걸로는 우리 애들이 안되고 큰 버스 중에서도 뭐 옆쪽에서 스톱 표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어린이용 보조 발판 있어야 되고 다음에 안전띠도 아이들 수준에 맞게 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장비도 개조하는데 대당 한 5~6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를 갑자기 어디서 구해 오라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O정 : 그러면 유치원이나 뭐 그런 데 사용하는 승합차 말고 좀 큰 차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담당자(이O호) : 그러니까 그런 차는 어떤 기관에 이제 전용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를 우리

가 하루만 빌려와서 체험학습을 나가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죠.

-김O정 : 이게 사실은 이게 애들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 때문에 못 나가는 게 좀 아쉬워서 사실은 그렇게 구할 수 없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자(이O호) : 저희도 뭐 구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확정적으로 체험 학습을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어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계획은 이렇게 심의를 받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무리이고 불가능하다 싶으면 이제 취소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붙여 이렇게 제안설명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김O정 : 네, 알겠습니다.

-이O화 : 네. 저희가 9월에 아이스링크장을 가려고 했고 10월에 과천과학관을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란색 버스 혹시 구할 수 있나 문의한 결과 구할 수가 없었구요. 그리고 저희가 2월 달에 이미 다 계약을 해 놓고, 계획까지 다 세워 놓았는데 계획 계약된 사항에서도 차량의 목적이 기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완전 위배되는 부분이어서 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래도 가보자라고 했었는데 여행자 보험을 또 따로 들잖아요. 여행자 보험에서도 그게 위법 차량이어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위험이 있고, 물론 사고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쩔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고 저희 9월 20일날 다른 활동을 대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충분히 되어 있으니 차량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걸 대신해서 학교 내에서 체육활동을 어떻게 하면 할 더 좋게 할 수 있을지 계획 중이니 그때 또다시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O정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안건 번호 2번 2023학년도 2학기중 현장체험학습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 략

-위원장 : 심의안건번호 3번 2023학년도 유치원 학사일정 변경(학교장 재량휴업일 변경)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 략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강O아) : 유치원도 초등과 동일하게 재량 휴업일 진행 시 학사일정이 변경이 될 예정이어서 함께 상정을 하였으나 초등학교 상정안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유치원도 같이 재량휴업일을 하지 않고 재량휴업일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심의 안건 번호 3번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네. 없습니다.

-위원장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안건 번호 3번 2023학년도 유치원 학사일정 변경(학교장 재량휴업일 변경)은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 략

-위원장 : 이상으로 제 4회 소래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임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 략

#### 출 석 위 원

출석위원 7

당연직 위원: 서0순 교장선생님

학부모 위원: 김0정, 이0희, 윤0용,

교원 위원 : 이0호, 조0민, 이0화

지역 위원 : 박0운